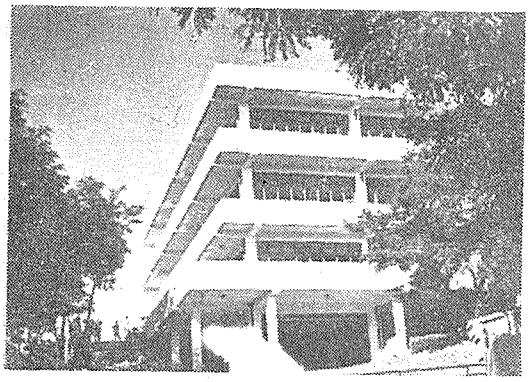
<순 방>

서울 특별 시립 종로 도서관



우리 나라에서 근대 도서관운동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06년 (광무 10년) 즉 대한제국 때의 일이다.

1894년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하여 이땅에 개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이래 경향 각지에서 개화의 한 산물로서 도서관 설치운동이 전개되었다.

광무 10년 2월에 서울에서는 유지들이 모여 사비로 도서관을 창설할 것을 논의하고 토대를 마련했으나 경영에 난관이 있어 결국 정부에 의존하여 종정부(宗政府) 내에서 정식 발족케하고 관사(館舍)의 확장과 장서수집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의 열람에 이바지 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평양에서는 지방 유지인 姜文玉, 郭龍舜, 金興潤 등이 사재로 大同書館이란 사설도서관을 설치하여 도서 1만권을 구입 비치하고 일반 시민의 열람에 이바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두 도서관의 운동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근대적인 공공도서관의 시초가 되는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이다. 그후 일본인의 침략을 받아 강제로 합병을 당하고서는 도서관의 설치 운동이 주로 일본인들의 손으로 넘어 갔고, 그들은 자기네들을 위한 소도서관을 각지에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들에 의한 도서관 설치운동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되었다. 즉 향교재단에 의한 간이도서관, 신문도서열람소(1922) 등이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평양에 인정도서관(1931)과 여기에 소개하려고 하는 서울의 종로시립도서관이 1919년 9월에 이범승씨에 의해서 설립 개관하게 되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적 개념의 도서관 운동의 태동의 시기를 1906년으로 잡는 다면 우리 나라는 이제 60여년의 근대도서관사를 이어온데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1920년대에 설립된 종로도서관은 개척기의 한 도서관으로서 의의를 크게 갖는 것으로서 그 중요 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 혁——

1919년 9월에 종로 2가 27번지의 국유지 531평과 동 지상건물 (구한국 군악대 건물 및 동 숙소)를 제 2대 서울시장을 지낸 바 있는 이범승 선생이 당시 조선총독부로부터 대여를 받아 경성도서관이라 칭하고 약간의 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供하게 되므로서 시작되었다.

그후 계속 사재를 들여 건물을 개축함은 물론 장서를 확충해 나아가다가 1923년 7월에 閔泳徽씨 등의 기증으로 석조건물을 건축하여 근대적 도서관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26년 3월에 재정난으로 더 유지할 수가 없어서 경성부에 양도하여 동년 4월 1일에 명칭을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이라 개칭하여 부영으로 개관케 되었다.

1945년 12월에는 광복후 제 2대 서울시장에 이범승씨가 취임하게 되어 경성부립종로도서관으로 개칭하고 개관과 더불어 초대관장에 송몽룡씨가 취임하게 되었다. 현재의 명칭은 광복된지 3년만인 1948년 8월에 지방자치법의 공포와 특별시 승격으로 개칭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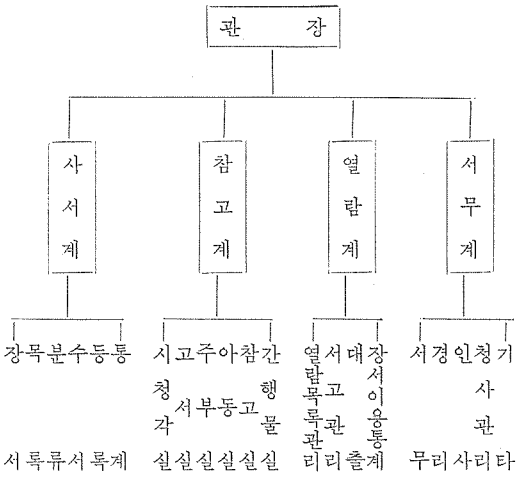
그후 미온적이나마 계속적으로 유지발전되어 오다가 지난 1967년 파고다공원 상가아케이드 건축계획으로 폐관의 위기에 직면하였든 바 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계의 강력한 건의와 현 이홍구 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신축 개관(1968.8.20)케 되었다. 그리고 1969년 8월 1일에는 다시 아동열람실(100석)을 증축 개관하므로써 현대적 공공도서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기구 및 시설현황——

본 도서관에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기구를 조직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가고 있다.

ㄱ. 시설현황

종로구 사직동 산 1—9(사직공원내)에 1,000평의 대지에 철근콩크리트로 세워진 총 1,061평의 4층 건물이다.



참고열람실을 비롯해서 아동열람실(100석) 주부열람실(40석) 시청각실(80석) 간행물실(30석) 고서열람실(6석) 등을 비롯해서 일반열람실(510석)은 물론 암실, 기계실, 제본실 등의 특별실과 관리적 기능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열람자들을 위해서 입실전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옥외도서실을 마련할 것이라하며 옥상에는 휴게실을 겸한 독서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자 료——

장 서 현 황 표

유 별	국내서	고서	일서	양서	계
총 류	3,135	480	2,787	326	6,728
철학·종교	2,405	595	2,185	83	5,268
사회과학	8,817	282	6,827	818	16,744
순수과학	1,765	—	187	54	2,006
기술과학	2,747	173	1,251	616	4,787
예 술	821	114	900	212	2,047
어학·문학	11,240	163	5,546	141	17,090
역사·지리	2,580	555	2,550	72	5,757
어학·의학	56	164	2,025	125	2,370
산업·교통	1	35	1,372	148	1,556
합 계	33,567	2,561	25,630	2,595	64,353

간행물은 국내 58종 외국 5종을 구입하고 있으며, 235종(국내)과 13종(외국)의 간행물을 기증받고 있다. 각종 신문은 구입 6, 기증 75종으로 총 81종을 받고 있다.

——운 영——

우리 나라에 있어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병폐이긴 하지만 시립종로도서관의 1969년 열람통계를 보면 총 298,573명의 열람자중 약 91.5%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며, 나머지 8.5%가 일반 성인과 주부로서 25,47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반열람실은 1일 평균 한 좌석에 2명씩이 이용한 형편인데(중·고·대학생들을 포함) 주부들의 열람현황은 1일 평균 약 16명으로서 마련한 24석도 항상 차지않는 형편이다. 아동열람실 (초등학생)은 1일 평균 107명으로서 비교적 붐비지 않았든 것 같으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개관한 것이 69년 8월 1일이므로 불과 5개월 약 150일로 친다면 1일 평균 260명으로서 1좌석당 1일에 2.6명이 이용한 꼴이 된다. 이상과 같이 대략적으로 살펴온 바에 의하면 주부열람실을 제외하고는 종로도서관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시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위와 같이 단편적으로 살펴본 바로 미루어 본다고 할지라도 이용자들이 주로 학생들로서 역시 전반적인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64,353책의 총장서가 년 2회전꼴이며 이용자의 약 40%가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서 비교적 자료를 활용시키는데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또한 음악감상이나 방송시설을 통한 정서적 분위기의 조성은 물론 아폴로와 같은 기록영화와 반공영화를 주 2회, 그리고 스라이드 등을 수시로 상영하여 시청각교육 써어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열람자들의 입실전에는 반드시 처음 찾아오는 사람을 위하고 장내 질서의 확립과 열람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Spot Orientation을 실시하는 등 최대의 친절한 봉사를 기하고 있다.

——계 획——

본 도서관에서는 보다 더 바람직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화, 다양화 되어가는 사회현실에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일을 계획하고 있다.

적극적인 관외봉사를 기하기 위한 직장순회문고, 자동차문고와 도서관 시설이 없는 신설학교 (주로 중등학교 대상)를 중심으로 한 학교문고를 통해서 가정과 연결하는 독서운동을 전개한다. 따라서 장서목록 발행작업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으며, 새로운 자료의 확충과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질향상에 노력함은 물론 유능한 사서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